성파시조문학상 40돌…“문학 발전 밑거름”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 김수엽 시조시인 대상

통도사 서운암서 시상식 개최
전국 단위 공모로 저변 확대
1984년 첫 시상식 이후 40년
성파 대종사 “전통 이어가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달 24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열린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에서 성파 대종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조문학의 가치를 알리고 민족시의 전통을 계승해온 ‘성파시조문학상’이 제정 40년을 맞았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은 6월 24일 경내 장경각에서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40회를 맞은 성파시조문학상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공모 범위를 확대했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학의 시작인 시조의 부흥과 현대적 구현을 강조해 의미를 더했다.

제40회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은 시조집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를 펴낸 김수엽 시조시인이 선정됐다. 김수엽 시조시인은 1992년 중앙일보 연말 장원, 199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됐으며, 시조집 〈우리 시대 현대시조 100인〉에 선정됐다. 시조시학 젊은시인상을 수상하고 한국시조시인협회 · 오늘의시조시인회의 회원, 전북시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문학상은 ‘하루의 그늘’을 쓴 서성자 시인과 ‘뜸부기’ 저자 박미자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새롭게 제정된 평론상은 유종인 평론가가 ‘현대시조의 식물적 상상력과 다의성의 미학’으로 수상했다. 또 홍외숙 시인이 ‘숨은 마음 찾기’, 전승탁 시인이 ‘뚜엔의 눈물’로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이 전달됐다. 상금은 대상 1000만 원, 문학상과 평론상은 각 500만 원, 작가상은 각 200만 원이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통도사 한주 성림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이정환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김민정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병환 울산시조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시조문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문학상이 40년을 맞았다. 전국 문학인들이 동참하는 시조문학상으로 성장한 것은 시조문학인들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시로써 오랜 전통을 이어온 문학이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장 서송 스님은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님의 후원으로 시조문학은 명맥을 잇고 수많은 시조문학인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해줄 수 있었다”며 “문학상 제정 40년은 전국으로 문학상 대상자를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게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발전과 시조 부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1984년 10월 26일 첫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2015년 32회까지 부산과 경남 시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2016년 33회부터 부산, 경남, 울산, 해외로 공모 지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전국으로 공모 범위를 넓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더했으며, 이번 40회 시상식을 기념해 〈성파시조문학〉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21세기 고타마 정신 되새겨야”

황경환 박사, 〈산스크리트 원문~〉 출판 기념법회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환 박사〈사진〉가 6월 24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축하무대와 우리말과 팔리어 삼귀의례, 저자 인사말 및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황경환 박사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을 주제로 강의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특히 이날 황경환 박사는 초기불전연구원(보리원) 신축불사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황 박사는 “생사의 문제가 반야심경 안에 있으며 생명과도 같은 화두를 깨우치며 얻은 결론을 책에 담았다”며 “한국불교 1600년 동안 중국불교를 답습하고 그로 인해 고타마 붓다의 정신과 가르침에서 어긋남을 이해했다. 21세기 고타마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서기 649년 현장 스님이 번역한 한문본을 대조하며 현장 스님이 담지 못한 것을 찾아 구석구석 대조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 책은 반야심경 260자 속에 담긴 생사 문제와 삶의 방향을 풀이하고 있다. 책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반환점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책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김사철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자와 불자 사업가인 황경환 박사가 초기불전을 근거로 반야심경을 풀이한 해설서다.

경주=하성미 기자

마음등불 밝히니 마음이 ‘맑음’

군포 정각사,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개최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2023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비 온 뒤 맑음’을 군포 정각사 포교당 광명사 내 광명도량 강당에서 개최했다. 정각사 내 사찰 홍보 및 각 신행단체, 군포시 산본역 거리홍보 등을 통해 사전접수를 받았으며, 6월 4일 진행돼 군포시 청소년 16명이 참가했다.〈사진〉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이번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비 온 뒤 맑음’이란 주제로, 마음챙김 기반 명상과 미술치료의 측면을 통합해 청소년의 자기 자비, 심리적 안녕감 및 학업 스트레스 감소를 느껴보도록 구성됐다. 특히 ‘비’라는 주제에 따라 연관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미술매체를 통해 마음껏 표현하게 함으로써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줬다.

여옥 스님(청소년 지도법사)은 “대학원(동국대 상담코칭학과 상담심리전공)에서 미술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김서현 교수와 함께 도반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과 미술매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 · 외적 갈등을 탐색하고 미술매체를 사용해 작품을 만든 후 소감을 나누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각사는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어린이 · 청소년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광명도량 강당을 새롭게 꾸며 법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정각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시 군포시 대야미동 광명사 내 광명도량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음성공양으로 전한 자비 나눔

부산 자비암문화예술단 창립 8주년 기념콘서트


‘자비암문화예술단 8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가수 엄재원(드림)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전문 가수들의 음성포교를 위해 구성된 자비암문화예술단(명예회장 자관)이 창립 8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6월 25일 부산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자비암문화예술단 8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태고종 자비암이 창립한 문화 예술인의 모임으로 가수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술단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경품 추첨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예술단 소속 가수들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후문이다.

행사에는 자비암문화예술단 명예회장 자관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8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해 예술단은 제습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복부마사지기 등 선물을 준비해 지역민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어린이 치어리딩 슈팅스타와 김영부, 윤애경, 금가인, 엄재원 등 여러 가수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명예회장 자관 스님은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땅에서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실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귀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라며 “자비암문화예술단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만나는 음악은 더 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이 된다. 앞으로도 신심을 놓지 말고 고운 음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맑혀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미 예술단 회장은 “8주년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관 스님을 비롯해 단원들의 마음과 뜻이 함께 어우러져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함께 즐겨주시고 소중한 추억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이 음성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예술단 창단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3개월의 준비과정을 마친 뒤 2015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식 창단했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문화예술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난 8년간 불교를 주제로 음성포교를 이어왔다.

자비암문화예술단은 매월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매년 6회 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음성포교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년 4회 부산 연제구와 사상구, 장애인협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음성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예술단은 동래구, 사상구, 북구, 중구 등 지역에서 수여하는 공로상과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붕 스님 사상 후대에 이어지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일붕존자 탄신 · 원적 추모



일붕 스님의 탄신 109주년을 기념하고 원적 27주기를 추모하는 대법회가 열렸다.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문장 혜운)는 6월 26일 의령 일붕사에서 ‘세계법왕 일붕존자님 탄신 109주년 기념 및 원적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문도중앙회 문장 혜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붕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27주기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만 같다”며 “존자님의 흔적과 사상을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의 한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도중앙회장 정림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붕사는 일붕존자님의 성지로 존자님의 진신사리와 부도탑, 법보전이 있는 일붕성지”라며 “먼 훗날까지 존자님의 사상이 유지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세계적인 성지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생전에 불교 발전을 위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포교 하셨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불교가 전해졌다. 존자님은 세계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대성인”이라고 추모했다.

문도중앙회 총재 동봉 스님도 “우리는 존자님의 제자로서 존자님의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천강 스님은 “큰스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진 세계불교법왕청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동참하는데 견인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의 추모시 ‘하늘 눈 해와 달이 되어’ 낭독, 추모사와 일붕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낭독됐다. 또 문도중앙회 총재 동봉 스님에게 일불평화대상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시로 회향한 무료급식 20년

우신 스님 전시 ‘회향’ 개최 그림 80여점… 수익금 기부


부산 혜일암 주지 우신 스님이 ‘회향’ 전시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우신 스님(부산 혜일암 주지)이 20여 년 동안 이어온 무료급식을 회향을 알리는 그림 전시회 ‘회향(廻向)’을 개최했다.

6월 27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우신 스님을 비롯해 성공 스님(범어사 대성암 감원), 정찬 스님(도림사 주지)과 백종헌 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강창일 금정문화회관관장, 고명욱 명갤러리대표, 유창오 백송 천연염색연구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신 스님은 “어머니에게 못다 한 효도를 지역 어르신에게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무료급식이었다.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급식을 멈추게 돼 회향 아닌 회향을 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미처 하지 못하고 떠나온 어르신들과의 공식적인 작별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의 인사에 이어 백종헌 국회의원과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신 스님이 펼쳐온 봉사정신과 자비행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시에는 우신 스님이 5년 전부터 틈틈이 배우고 익혀온 그림 80여점을 선보였다. 그림은 스님이 직접 천연 염색한 천에 그린 것으로 꽃, 과일, 자연풍경, 사찰 탑 등 스님이 보고 사진으로 찍어둔 순간을 표현했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우신 스님은 1975년 출가해 운문사 승가대학을 수료한 뒤 선방에서 안거했다. 인도 무문관 수행을 했으며 소록도 재소자 교화 2년, 어르신 무료급식 18년, 독거어르신 반찬 서비스 봉사도 7년 동안 진행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초청법회

울산 서장사 주최…연기법 주제로 대중법문

울산 천마산 서장사(주지 불성)가 6월 25일 대웅전에서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노루부 스님은 티베트 3대 사찰 중 하나로 알려진 대풍사원에서 불교 교육부 주요책임자로서 불교철학을 교육하고 있다.

이날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은 연기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롭게 하고자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의 경지를 이룬다면 모든 고통과 아픔은 그 뿌리까지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며 “매시간 삼귀의를 하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생명들을 위해 무량한 마음으로 선을 쌓는 보시행을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는 주지 불성 스님, 노루부 스님, 인강 스님을 비롯해 양승규 동국대 교수 및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법문, 기념촬영, 사홍서원,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역은 인강 스님이 맡았다.

주지 불성 스님은 “법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들은 법문을 실천 수행해 자신의 것으로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덕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장사가 6월 25일 대웅전에서 티베트 게쉬 체링 노루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